

춘향제 D-50 프레스데이 개최

남원시,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서

남원시가 1931년부터 개최되며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춘향제'의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4회 남원 춘향제 D-50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춘향제는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하며 오는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날 프레스데이에는 서울 소재 중앙일간지 여행 담당기자, 한국 주재 외신 기자단, 국내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 시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춘향제의 방향성과 관전포인트 등을 소개했으며, 최경식 시장이 변 사포로 분장하고 춘향제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춘향제 캐릭터 코스튬'을 쇼케이스로 짧게 선보이면서 국내 기자는 물론, 외신기자 등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22년 미스춘향 선 정가까지 △2023년 미스춘향 진 김주희씨 △신 신아림씨 △미 신서희씨 등 춘향 홍보대사 등이 주인공 캐릭터로 함께 참여해 포토타임을 가졌다. 또한 '춘향제'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도 마련, 대한민국 최장수 전통문화 축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한 외신기자는 "지역 전통문화축제로만 알고 있었던 춘향제가 올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축제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기대와 성원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4회 남원 춘향제 D-50 프레스데이'를 연 가운데, 변사포로 분장한 최경식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시설원에 스마트팜구축 지원

심 민 군수, 오이·딸기 스마트팜 시설 방문 및 농가들과 소통

임실군이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재배 온실 등 청년 창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구축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도 공모사업인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신덕면에 올해 2월 스마트팜 구축을 완료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스마트팜에서는 사계절 내내 오이와 토마토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심 민 군수는 지난 19일 신덕면과 관촌면 등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시설재배 농가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심 군수는 이날 오이와 딸기 스마트팜 시설 2곳을 방문하여 임실군에 알맞은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곳은 각종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재배 온실로, 임실군 청년 창업



심 민 군수는 지난 19일 신덕면과 관촌면 등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시설재배 농가들과의 소통하고 있다.

농 경영실습농장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군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과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해 임실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기후변화, 인구감소에 따른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으로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팜구축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21일 주천면 지리산 일번지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 지리산 일번지 행복나눔터 준공식

남원시는 21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주천면 지리산 일번지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가졌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란 면 소재지 등 배후 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공모에 선정되

어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개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은 '지리산일번지 행복나눔터'라는 명칭의 문화복지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1,021.58㎡ 규모의 시설 내부에 주천면민들이 모여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식기념품 공급업체 모집... 4월 5일까지

순창군이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를 방문하는 주요 외부인에게 제공할 대표 공식기념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나, 군을 대표할 통일된 기념품의 부재로 홍보에 한계를 느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 및 국회 방문 시에도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념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공식기념품 공급업체를 모집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 기념품을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순창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예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식기념품 공급업체 모집 자격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농산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의 생산·제조·보관 시설을 갖춘 업체로, 기념품의 용도에 맞게 소분 또는 날개 포장 가능한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제품은 선정단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할 예정이고, 평가는 사업체의 운영 역량과 지역자원 활용도 등 2개 부문 서면심사와 지역 상징성, 휴대성, 차별성, 실용성, 납품 기능성의 5개 부문별 평가를 통해 적정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50% 지원

순창군은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게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를 모집중으로, 신청기한은 사

업량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2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하여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대상 기업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중인 18세~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의 차량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민 건강관리 시범사업 발걸 회의

남원시가 지난 20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주민 건강관리사업 발걸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홍보전산과, 노인장애인 과, 남원의료원, 강대희 서울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 씨어스테크놀로지 이영신 대표, 심비아 헬스 고명진 대표 등 총 30여명이 참석,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남원시 맞춤형 주민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발걸하는 장이 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경로당 도우미 활용 방안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서비스 △경로당 이용자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걸행환자 복지지원 및 대상자 예약 알림 서비스 등이 논의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계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다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